

KIA 뛰는 야구에 팬들 가슴도 뚫는다



김도영

‘도루왕’ 출신 김종국 감독 “한 루라도 더” 강조 ... 박찬호 경험·김도영 스피드 올시즌 큰 기대감

‘호랑이 군단’의 뛰는 야구에 KIA 타이거즈 팬들의 가슴도 뚫는다. 올 시즌 새로 KIA 지휘봉을 잡은 김종국 감독은 뛰는 야구를 주문하고 있다. 단순히 베이스를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적인 주루로 ‘한 루’라도 더 가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게 김 감독의 구상이다. 선수들은 새 사령탑이 말하는 ‘뛰는 야구’에 맞춰 연습경기 때부터 달라진 주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과 달리 KIA 주자들이 공격적으로 그라운드를 뛰면서 상대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그만큼 상대의 실수도 나오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선수들은 ‘그린라이트’를 부여받

아 마음껏 뛰어보고 있다. 선수들은 본 무대에 앞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다. 현역 시절 ‘도루왕’으로 명성을 날렸던 김종국 감독은 “시도해보고 죽어봐야지 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팬들도 달라진 기동력에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찬호와 ‘슈퍼 루키’ 김도영이 만들어 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찬호는 수비와 주루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2019시즌에는 ‘도루왕’에도 등극했던 만큼 경험 있는 박찬호는 KIA 기동력의 핵심이다.

여기에 스피드로는 KBO 수준을 넘어선 김도영이 가세하면서 올 시즌 KIA의 ‘뛰는 야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 12일 NC와의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자신의 스피드를 제대로 보여줬다. 대주자로 들어가 2루에 이어 3루까지 내달리면서 연속 도루에 성공했고, 상대의 송구 실책을 유도해 득점까지 만들었다. 15일 삼성과의 시범경기에서는 넘치는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해 도루 실패를 기록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실패에도 감독과 팬들을 웃게 한 스피드였다.

아직은 경험 부족의 김도영을 이끌며 KIA 기동력 전면에 서야 한 박찬호는 “경쟁력 있는 팀이 된 것 같다”며 ‘뛰는 야구’에 대한 중간평가를 했다. 그는 “상대한테는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주루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령탑도 큰 힘이다. 박찬호는 “감독님께서 잘 아시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 죽더라도 박수 보내주시다면 선수들은 더 편하게 자신 있게 뛰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도영의 스피드는 ‘도루왕’ 박찬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특별하다. 박찬호는 “미친 것 같다. 공격, 주루는 절대 20살

이 아니다. 몸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며 찬사를 보냈다. 박찬호는 옆에서 ‘경험’을 더해지면서 ‘도루왕’ 러닝 메이트 역할을 할 생각이다. 박찬호는 “도영이가 도루왕하려면 몇 개 해야 하고 물어봤다(웃음)”며 “삼성전에서 도루 실패한 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다. 프로 그라운드만큼 딱딱하다. 아마추어 야구장은 폭신 거러서 스파이크가 박힌다. 프로에서는 쪽 미끄러지니까 제어를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알 것이다. 죽어봤으니까 알 것이다”고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화려한 국내 야구 복귀

151억원 ... SSG에 입단
역대 KBO리그 최대 규모

본신과도 같은 2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김광현(34·SSG 랜더스)은 환하게 웃었다. 프로야구 SSG 구단은 16일 인천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에서 김광현 입단식을 열었다. 김광현은 민경삼 SSG 대표이사에게 전달받은 흰색 유니폼 상의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쓴 뒤 3년 만에 돌아온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19년 말 미국으로 떠날 땐 전신인 SK 와이번스 유니폼이었으나 돌아와서는 SSG의 새 옷을 입었다. SSG 구단은 지난 2년간 김광현의 등번호 29번을 잠정 결번으로 했다가 주인이 오자 돌려줬다. SK에서 김광현과 선수로 함께 뛰고, 이후 투수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이어간 김원형 감독을 비롯해 김광현과 함께 뛰기를 소망해 온 배태광 타자 추신수(40), 최정(35)이 입단식에 참석해 차례로 김광현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복귀를 축하했다. 김광현은 지난 8일 SSG와 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 등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했다. 이는 자유계약선수(FA)·비(非) FA를 통틀어 역대 KBO리그 최대 계약 규모다. 입단식 직전 류현진 SSG 단장은 올해 김광현의 연봉이 8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추신수가 2년 연속 보유한 역대 KBO리그 최고 연봉(27억원)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김광현은 2019년 말 SK 구단의 용단으로 4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건너간 2년간 빅리거로 활동했다. 보유권을 쥔 SSG는 김광현을 미국으로 보내며



김광현이 16일 오후 열린 SSG 랜더스 입단식에서 유니폼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를 임의탈퇴신분으로 공식했다. KBO 규약상 임의탈퇴선수 신분이 되면 해당 선수와 구단의 종전 계약은 해지된다. 이에 따라 김광현은 이번에 SSG와 계약금 없는 비 FA 장기 계약을 했다. 2007년 1차 지명으로 SK에 입단한 김광현은 2019년까지 통산 136승 77패, 2홀드, 탈삼진 1456개, 평균자책점 3.27을 남긴 한국 대표 좌완

투수 중 한 명이다. SK의 4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한 김광현은 2016년에는 KBO리그 역대 원수 투수 중 세 번째로 통산 100승을 달성했다. 빅리그에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2020~2021년 2년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통산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을 남겼다. /연합뉴스

류현진 출국 토론토 훈련캠프 합류

19일부터 시범경기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5개월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동로들과 만났다. 2022시즌부터 함께 뛰는 일본인 투수 기쿠치 유세이(31)와도 대면했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지 토론토선의 록 롱리 기자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류현진이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 등 (캠프 합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훈련장에 도착해서는) 클립하우스를 향해 질주했다”고 류현진의 스프링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9일 입국한 류현진은 약 5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14일 출국했고, 16일 토론토 훈련장이 있는 더니든에 도착했다. 그는 올해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가장 오래 한국에 머물렀다. 그동안 류현진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미국으

로 건너가 개인 훈련을 하다가, 2월 중순부터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지난해에는 2월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올해는 메이저리그 노사가 단체협약(CBA) 개정을 두고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개막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류현진은 ‘친정팀’ 한화 이글스 선수단과 국내에서 훈련하며 미국 현지 소식을 기다렸다. 메이저리그 노사는 11일 CBA 개정에 합의했고, 4월 8일을 정규시즌 개막일로 정했다. 대전에서 한화 선수들과 훈련하던 류현진도 서둘러 출국 일정을 잡았다. 류현진보다 조금 일찍 더니든에 도착한 토론토 투수들은 16일 불펜피칭을 했다. 13일 토론토와 3년 3600만달러에 계약한 기쿠치도 이날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 앞에서 공을 던졌다. 류현진도 한국에서 불펜 피칭까지 마쳐, 실전 등판에 문제가 없다. 토론토는 19일부터 시범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필드 복귀 무대는 내년 마스터스 대회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뒤 재활에 힘쓰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필드 복귀 무대로 내년 마스터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주간지 피플이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즈가 내년 마스터스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면 특히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가진 마스터스 최고령 우승 기록(46세 2개월 24일) 경신이 우즈의 새로운 목표라고 전했다. 내년 마스터스가 열리는 4월에 우즈의 나이는 만 46세 3개월이 넘는다.

우승한다면 마스터스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갈아치울 뿐 아니라 니클라우스가 가진 마스터스 최다 우승(6승) 타이 기록을 세운다. 이 소식통은 “우즈가 최고령 우승 기록을 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즈는 애초 니클라우스의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18승) 기록 경신을 필생의 목표로 여러 차례 밝혔다. 우즈는 메이저대회에서 15차례 우승했다. 2019년 마스터스에서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